

1990 년 이후 A 형 간염 발현율의 변화  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내과학교실  
조재철\*·정성애·최원범·정영화·이영상·서동진

**목적:** 최근 20 년간 생활환경과 위생상태가 향상되면서 소아에서 A 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감소 하였고, 그에 따른 청소년과 청년층의 항체 보유율이 감소 하면서 현증 A 형간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다. 본 연구는 1990 년 이후 A 형 간염 발현율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 **방법:** 1990 년 1 월부터 1998 년 4 월까지 서울 중앙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에서 임상상 및 IgManti HAV 가 양성으로 확인된 급성 A 형 간염환자 77 명을 대상으로 임상조건 및 검사실적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**결과:** ① 전체 환자수는 9 년간 총 77 명이었다. 1995 년 까지는 연간 4 명 이하하다가 1996 년에 13 명, 1997 년에 12 명으로 증가를 보이고 1998 년에는 4 개월동안 30 명으로 갑자기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. ② 평균연령은  $31.3 \pm 20.4$  세(범위, 7/12 세~76 세)였고, 10 대와 20 대가 각각 26 명씩으로 전체의 67.6% 였으며, 60 세 이후에도 16 명(20.8%)에서 발생하였다. ③ 남녀비는 1.5:1 로 남자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. ④ 주된 증상은 황달이 52 명(67.5%)으로 가장 많았고, 고열, 근육통 및 복통의 순이었으며, 60 세 이후에 발생한 1 예는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. ⑤ 검사실 소견으로는 입원당시 Bilirubin 이 평균  $6.1 \pm 5.9$  mg/dl (범위; 0.5-34 mg/dl)였고, ALT는  $1067.1 \pm 1020.9$  IU/L (범위; 12-4607 IU/L), AST 가  $668.0 \pm 983.2$  IU/L (범위; 15-5830 IU/L)이었다. **결론:** 1996 년 이후 성인에서 A 형 간염의 현증 감염율이 증가 하다가 1998 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A 형 간염 항체 보유율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역학적 연구를 통해 성인 및 소아에서 예방접종의 필요성 및 접종대상의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.

A 형 virus 간염의 임상양상 변화에 대한 고찰  
국립경찰병원 내과

윤수진\*, 안 민, 장원규, 오형모, 김윤권, 김소연, 김영중, 조민구

A 형 바이러스 간염은 사회적,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그 발생빈도가 다양하며, 주로 소아기에 발생 하여 비교적 임상경과가 가볍고 대부분의 예에서 잘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있다.

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도 현증 A 형 간염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발생의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, 폭발적 증가예나 재발례도 종종 보고된다.

이에 저자들은 1997년 1월~1998년 7월동안 경찰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HAV-Ab(IgM) (HAVAB; Abbott)에 양성반응을 보여 A 형 바이러스 간염으로 진단된 22예에서 간기능 검사 추적관찰로, 그 임상적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기에,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

**결과:**

1. 총 22예의 연령별 분포는 16~20세가 7예(31.8%), 21~25세가 8예(36.3%), 25~30세가 6예(27.3%), 31~35세가 1예(4.5%)로 나타났고, 성별로는 남자가 19예(86.3%), 여자가 3예(13.6%)로 주로 젊은 남자에서 현증 A 형 간염이 관찰되었다.
2. 주증상은 진한 소변, 오심, 구토, 전신쇠약 순으로 나타났고, 이학적 소견은 공막황달, 우상복부 압통의 순으로 나타났다.
3. 총 22예 중 21예에서 황달성 간염을 보였고, 1예에서만 비황달성 간염이었다.
4. 총 22예 모두 GPT가 40unit 이하로 회복될 때까지 추적관찰 결과, 14예(63.6%)에서 6주 이상에 걸쳐 회복되었고, 3~5주에 회복된 경우는 8예(36.4%) 이었다.
5. 18개월 동안 추적 관찰 결과, 만성경과를 밟는 예는 없었다.
6. 계절적 발생빈도는 봄 14예(63.6%), 여름 3예(13.6%), 가을 0예(0%), 겨울 5예(22.7%)로 봄에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.
7. 입원기간은 3주 이상인 경우 17예(77.3%), 2주 이하인 경우 5예(22.7%)였고, 단 1예(4.5%)에서 통원치료 하였다.

결론적으로, 주로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20대를 대상으로 현증 A 형 virus 간염을 보인 경우를 관찰한 결과, 이전의 보고에 비하여 주로 황달성 간염의 임상상으로 발현되며 간기능 검사 회복도 대부분의 경우 6주 이상으로, 보다 심한 임상경과를 밟는 것으로 사료된다.